

신용평가에서 중소기업 경영자 역량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이천희¹, 이동명^{2*}, 진로³

¹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박사과정, ²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교수, ³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박사

Relative Importance of Executive Competency Factors of SMEs and Venture Firms in Credit Evaluation

Chun Hee Lee¹, Dong Myung Lee^{2*}, Chen Lu³

¹Ph. D. Candidate, Dept. of Advanced Industry Fusion, Konkuk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Advanced Industry Fusion, Konkuk University

³Ph. D., Dept. of Advanced Industry Fusion, Konk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경영자 역량에 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은행에서 경영자 역량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중소기업 CEO는 경영자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은행의 대출담당자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AHP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출담당자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윤리경영, 전략적 사고, 전문지식수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CEO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마케팅, 은행거래신뢰도, 자금조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신용평가에서도 선행연구의 상대적 중요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을 공개하고 CEO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경영자 역량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연구하여 향후 발전된 모형개발에 도움이 되는 요인과 중요도를 제시한 점에 있다.

주제어 : 중소기업, 중소기업, 신용평가, 경영자 역량, 계층분석모형, 상대적 중요도

Abstract This study is to provide a method to increase the credit rating of the company by examining and managing the executive competency of the CEO of SMEs and Venture Firms. We analyzed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AHP by surveying bank loan staff and CEO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ethics management, strategic thinking, and expertise level were the highest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bank loan staff. The relative importance of CEOs was higher in order of marketing, bank transaction reliability, and financing. Result of this study is similar to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to disclosing credit rating system and reflect the opinions of the CEO in order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actors and the importance that can help to develop advanced models.

Key Words :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and Venture Firms, Credit Rating, Executive Competency, AHP, Relative Importance

*Corresponding Author : Dong Myung Lee(dmlee@konkuk.ac.kr)

Received March 6, 2019

Accepted April 20, 2019

Revised April 5, 2019

Published April 28, 2019

1. 서론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 원화대출금 잔액추이를 보면 2017년말 기준으로 기업대출 약 817조원과 가계대출 약 660조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대출금 중에서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161.8조원(19.8%),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655.5조원(80.2%)이다.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0년 57.0%에서 2017년말 71.0%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담보 및 신용보증서 위주의 대출관행이 심화된 결과이다. 은행들이 대손비용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자본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을 확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였고,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을 부동산임대업보다 생산적 금융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취약하여 대출받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유인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1].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지원하면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진성을 분류하고 충당금을 적립한다. 따라서 부정확한 신용평가는 은행의 건진성과 수익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은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의 신용상태나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은 대출결정이나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신용평가에서는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에 대하여 적용항목과 가중치를 고려해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2], 신용평가모형을 보유한 전문 신용평가회사와 같이 대부분 은행들도 대출결정과 체계적인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규모별, 업종별 등 다양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탐문 되고 있다.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모형에서 비재무적 요인에 주목하는 것은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도 부실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편이고, 정상적으로 경영되는 중소기업에서도 비재무적인 요인이 급격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을 신용평가 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재무적 요인만으로는 기업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재무제표의 재무적 요

인을 사용한 도산예측을 수없이 진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재무적 요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와 객관성이 부족하여 어떤 요인을 적용해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3]. 기존 신용평가의 연구는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재무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였고, 비재무적 요인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단편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실무에서도 중소기업의 신용평가표에서 비재무적 요인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4].

경영진 의사결정이 경영활동 중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로 기업의 미래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5], 기존 연구에서 AHP 기법을 통한 비재무적 요인의 중요도 분석에서도 경영자 역량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하였다[4]. 또한 은행연합회가 개발한 중소기업 신용평가표를 활용한 비재무모형 연구에서 비재무적 요인으로 경영자 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6], 경영자 능력이 높은 경영자는 수익성을 기반으로 대형화전략 및 수익원 다각화 전략을 더 잘 수행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7].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비재무적 요인으로 경영자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경영자역량이 기업성과와 직결되어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신용등급은 신용대출 결정과 대출금리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성을 개선하려면 금융계약 시에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을 공개하고 개선방법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고 소비자의 신용정보가 부정확할 때는 이의 청구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8], 정확한 신용판단을 위하여 위험도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신용평가체계를 통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및 주요 정보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신용평가 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9].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결정에서도 투명성이 낮아 투자자들은 신용평가에 의존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발행자는 신용등급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신용평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성과 적시성으로 시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0].

기업은 신용평가의 대상이면서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과 비교할 때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은행의 신용평가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의 중요한 내용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잘 인지하고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대한 기업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등급의 방향성과 모니터링 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하여 신용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끊임없이 시장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소통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11], 기존 신용평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은행의 입장 또는 기업의 입장 한 쪽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며 은행과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에 관하여 은행과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으며 주로 신용평가의 대상으로 평가받던 기업의 입장을 같이 반영하고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에서는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은행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던 요인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계기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력, 성장잠재력과 같은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의 신용평가 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 역량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경영자 역량 요인을 도출하고, 계층분석모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은행의 대출담당자와 중소벤처기업 CEO를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하는 대출담당자와 신용평가를 받는 중소벤처기업 CEO를 구분하여 차이를 연구한 것이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이다. 대출결정에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의 대출담당자와 기업의 성장성을 중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CEO 간에는 경영자 역량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영자역량 요인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은행의 대출담당자와 중소벤처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역량에 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은행에서 경영자 역량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과 중소벤처기업 CEO가 경영자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경영자 역량 요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주로 신용평가회사나 은행 등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는 신용등급으로 표시된다. 신용평가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재무적 요인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으로 구성된 비재무적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중소벤처기업의 신용평가에서 비재무적 요인은 관련 정보가 부족하지만 산업이 급변하고 경기의 순환주기가 빨라져 재무적 요인보다 신용평가에서 더 유용하며, 특히 비재무적 요인 중에서도 경영자 역량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경영자 역량을 항목별로 구분한 내용을 보면 CEO 핵심역량으로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사회적 역량을 사용한 CEO 핵심역량모델이 평가에 유용하고 간편하다고 하였고[12], 1인 기업의 창업자 역량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는 전략적 역량, 기술적 역량, 관리적 역량은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었으나 네트워크 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13],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창의역량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4].

기술적 역량으로는 동업종 근무경력, 전공 교육수준, 기술 지식수준 등을 사용하였으며, 고학력, 동업종 경험이 많을수록 연구개발에 적극적이며 일반창업보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공계 창업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15]. 의료기기 벤처기업의 신용평가모형에서는 재무비율 가중치(0.345)보다 비재무적 요인 가중치(0.655)가 약 2배 정도 높고 우선순위는 경영자의 기술, 지식 및 경험수준, 매출액 증가율 등이 나타나 기술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16].

기업가적 역량으로 시장기회 포착능력, 위기관리능력, 전략적 사고, 창조적 문제해결능력 등 13개의 요인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에서 기업가적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창업교육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17],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장공모 심사기준에 전략적 사고, 비전제시능력, 위기관리능력 등 기업가적 역량을 다른 역량과 함께 제시하였다[18].

관리적 역량으로는 자금조달, 경영관리, 마케팅 등을

사용한 초기 시장진출 성공 요인의 연구에서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19], 중소벤처기업의 신용평가모형에 적용이 가능한 비재무적 요인으로 전문성, 수익성, 자금조달능력, 리더십 등을 제시하였으며 관리적 역량인 자금조달능력 요인이 중요하다고 하였다[4].

사회적 역량으로는 사회적 책임 평가체계 연구에서 중소벤처기업 내부의 우선순위는 경영효율성 제고, 품질향상노력, 준법성 등으로 나타났지만, 학계와 공무원 등 외부의 우선순위는 윤리성/도덕성, 품질향상노력 등이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은 준법성을 중시하고, 외부의 평가자들은 윤리성/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분석하였다[20].

기존 선행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본 결과 경영자 역량 요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각 항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2 AHP

계층분석모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다기준 의사결정의 기법으로 1970년대 초 Tho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의사결정 문제에 적용하고 있다.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하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최종 해를 구하기 위하여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하면서 측정하는 방법과 척도(Scale)에 AHP 기법이 있다고 하였다[21]. AHP 기법이 유용성의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여 의사결정자가 객관적인 평가요인과 함께 주관적인 요인, 정성적 요인, 정량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도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으며, AHP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무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집단의 규모는 집단의 특성이 동질적일 때 10명 이내의 소수의 표본수로도 충분하다고 제시하고 있다[22].

기존 연구에서 AHP 기법을 활용한 사례는 경영자경력, 경영형태, 은행거래현황 등 비재무적 요인을 가지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비재무 신용평가모형을 제시하였

Table 1. Definition of Executive Competency Factors

	Criteria	References
Technical Competency	Career Experience	Park and Kim(2011), Lee and Yang(2016)
	Level of Expertise	Park and Kim(2011), Lee and Yang(2016)
	Level of Education	Lee and Yang(2016), Antonia et al.(2011)
	R & D	Lee et al.(2017), Park and Hwang(2010)
	Quality Improvement Efforts	Yun et al.(2017)
	Standardization Performance Management	Park and Hwang(2010)
Entrepreneurial Competency	Crisis Management Ability	IIAC(2014), Morris et al.(2013)
	Ability to Capture Market Opportunities	Lee(2017), Morris et al.(2013)
	Strategic Thinking	IIAC(2014), Antonia et al.(2011)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Morris et al.(2013), Park and Hwang(2010)
	Leadership	Yoo and Lee(2015), Park and Hwang(2010)
	Decision Making Ability	Park and Hwang(2010)
Managerial Competency	Financing	Lee et al.(2017), Morris et al.(2013)
	Marketing	Park and Kim(2011), KED(2016)
	Labor Management	Hong and Shin(2007), KED(2016)
	Communication	Park and Hwang(2010)
	Age of Company	Yoo and Lee(2015)
Social Competency	Industry Reputation	Park and Kim(2011), Kim et al.(2012)
	Ethics Management	Kim et al.(2012), Yun et al.(2017)
	Bank Transaction Reliability	Park and Kim(2011), Kim et al.(2012)
	Ability to Cooperate with the Public	IIAC(2014)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Park and Hwang(2010)
	Social Contribution Management	Park and Hwang(2010)

으며[6], 의료산업의 신용평가에서 재무적 요인을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등으로 하고, 비재무적 요인은 경영자 능력, 기술성, 시장성 등으로 하여 AHP 기법을 통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16]. 또한 창업 성공요인 연구에서 100개사 CEO를 대상으로 하여 AHP 기법으로 비재무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였다[23].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대출담당자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이들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AHP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3.1 델파이기법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용평가에서 경영자 역량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23개 요인으로 경영자 역량 요인을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기업대출 경력 10년 이상인 대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델파이 기법의 특성에 따라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설문대상자가 당초 생각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

년 1월 16일까지 3주 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다. 델파이 기법의 분석과정 1차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23개의 요인을 제시하고 경영자 역량에 해당하는 추가요인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분석과정 2차에서는 1차에 도출된 요인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빈도수와 함께 제시하였고 1차에 제시된 요인들 중에서 15개의 요인을 중요도에 따라 기술하게 하는 단계를 거쳤으며, 다시 추가적으로 피드백하여 의견을 조율하였다. 3차에 걸쳐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2개의 경영자 역량 요인을 확정하여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설문대상자 간의 동의를 구하였다.

3.2 계층구조

본 연구에서는 박봉경·황승국(2010), 김창봉·이승현(2017), 김형철 외(2015)의 선행연구[12-14]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델파이기법으로 도출된 경영자 역량 요인을 AHP 기법으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각 상위계층 항목별로 3가지 하위계층 요인을 설정하였다.

3.3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경영자 역량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은행의 대출담당자에 대한 설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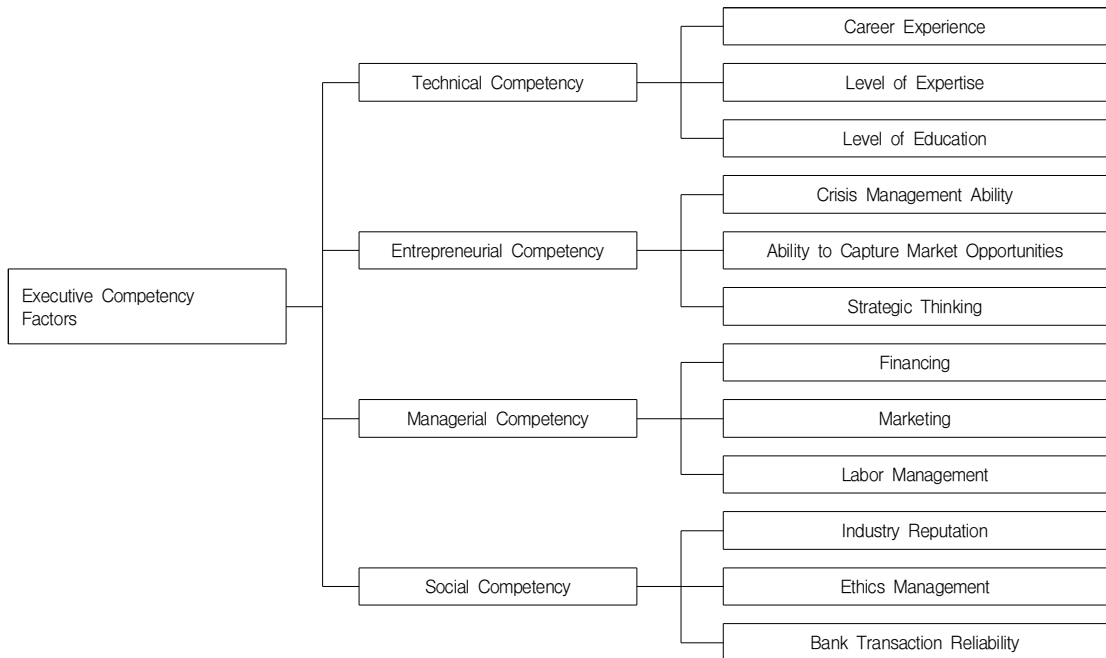


Fig. 1. AHP Hierarchy of Executive Competency Factors

사 자료수집은 국내 대형은행들에서 조사일 현재 근무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대출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 CEO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수집은 조사에 참여한 대출담당자가 근무하는 은행을 거래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CEO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 대상 중소벤처기업 CEO를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재무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는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방법은 우편조사와 전화를 통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각 항목은 응답자들이 두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9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은 모두 0.1미만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처리는 Microsoft Excel 2013과 AHP 소프트웨어인 Open Decision Maker를 활용하였다.

4. 실증 분석

4.1 응답자 특성

은행의 대출담당자와 중소벤처기업 CEO에 대한 설문을 각각 60부씩을 배부하여 대출담당자는 45부를 회수(75%)하고, 중소벤처기업 CEO는 40부를 회수(67%)하였다. 각각의 설문지에서 일관성비율이 0.1을 초과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각각 30부씩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대출담당자를 관리자인 팀장과 실무자인 팀원으로 구분한 것은 연구자의 실무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근무기간이나 대출경험 등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 간에 경영자 역량 요인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보았고, 중소벤처기업 CEO를 벤처기업 인증기업과 벤처기업 미인증기업으로 구분한 것은 정부정책이나 은행의 대출지원 등에서 두 집단 간에도 중요도가 다를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출담당자 30명과 중소벤처기업 CEO 30명의 응답자 특성은 Table 2와 같다.

4.2 경영자 역량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4.2.1 대출담당자의 상대적 중요도

본 연구에 응답한 대출담당자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출담당자에 대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영자 역량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상위계층은 사회적 역량(0.303)이 우선순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기업가적 역량(0.264), 관리적 역량(0.218), 기술적 역량(0.215)이 뒤를 이었다. 하위계층에서 상대적 중요도는 윤리경영(0.119), 전략적 사고(0.102), 전문지식수준(0.098) 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동업계 평판(0.096), 마케팅(0.095), 시장기회포착능력(0.094), 은행거래신뢰도(0.089), 노사관리(0.079), 교육수준(0.075), 위기관리능력(0.067), 자금조달(0.044), 동업종 경력(0.042)의 순서로 나타났다.

윤리경영이 우선순위로 산출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학계와 공무원 등 외부 평가자들이 윤리성/도덕성, 품질향상노력 등을 우선순위한 것[20]과 엔젤투자자 투자의 사결정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윤리경영을 나타내는 신뢰성(18.1%)과 진실성(15.9%)이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과 같다[24].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는 큰 범위의 윤리경영을 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엔젤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에서 윤리경영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기업가치를 검증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신용평가에서 경영자의 윤리경영을 우선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유발시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회계분식,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25].

대출담당자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윤리경영이 가장 높은 것은 중소벤처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대기업보다 낮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이는 회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Bank Loan Staff		CEO of SMEs and Venture Firms	
	Job Level		Venture Firms Certification	
	Team Leader	Team Member	Venture Firms Certified	Venture Firms Uncertified
Frequency	18	12	12	18
Percentage(%)	60.0	40.0	40.0	60.0

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분석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윤리경영은 최근 들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실시하는 CEO 연대보증인 면제제도가 점차 확대될 조짐이어서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고, 윤리경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커뮤니케이션의 빠른 속도 때문에 기업의 생존 여부에 큰 영향을 주며, 이는 정부에서도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항목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강화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사료된다. 은행의 입장에서 윤리경영은 신용평가나 대출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윤리경영은 과거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타난 전략적 사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공모 심사기준에서 조직관리, 기업경영의 경험 등과 함께 기본역량으로 제시되었으며[18],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는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6]. 즉, 전략적 사고는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고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대출담당자들에게 있어서 기업이 무한경쟁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CEO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담당자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가장 낮게 산출된 동업종 경력은 엔젤투자자 투자사결정의 상대적 중요도 연구에서도 산업경험 요인이 1차 토픽이 기법에서는 도출되었으나, 2차 토픽이 기법의 설문에서는 도출되지 못한 것과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였으며[24], 다음으로 낮게 산출된 자금조달은 기업의 정성적 평가요인의 중요도

Table 3. Weights and Ranks of Bank Loan Staff

Criteria	Weight	Sub-Criteria	Weight	Adjusted Weight	Rank
Technical Competency	0.215	Career Experience	0.196	0.042	12
		Level of Expertise	0.456	0.098	3
		Level of Education	0.348	0.075	9
Entrepreneurial Competency	0.264	Crisis Management Ability	0.255	0.067	10
		Ability to Capture Market Opportunities	0.358	0.094	6
		Strategic Thinking	0.387	0.102	2
Managerial Competency	0.218	Financing	0.203	0.044	11
		Marketing	0.434	0.095	5
		Labor Management	0.363	0.079	8
Social Competency	0.303	Industry Reputation	0.316	0.096	4
		Ethics Management	0.392	0.119	1
		Bank Transaction Reliability	0.292	0.089	7

Table 4. Weights and Ranks of CEO

Criteria	Weight	Sub-Criteria	Weight	Adjusted Weight	Rank
Technical Competency	0.122	Career Experience	0.209	0.025	12
		Level of Expertise	0.365	0.045	11
		Level of Education	0.426	0.052	10
Entrepreneurial Competency	0.232	Crisis Management Ability	0.262	0.061	9
		Ability to Capture Market Opportunities	0.397	0.092	5
		Strategic Thinking	0.341	0.079	7
Managerial Competency	0.349	Financing	0.300	0.105	3
		Marketing	0.439	0.153	1
		Labor Management	0.261	0.091	6
Social Competency	0.297	Industry Reputation	0.241	0.072	8
		Ethics Management	0.346	0.103	4
		Bank Transaction Reliability	0.413	0.122	2

산출 연구에서 20개 요인 중 10위의 순위를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27]. 대출담당자의 입장은 경영자 역량 중 동업종 경력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기적인 신용평가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적고, 자금조달은 대출담당자들이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조달 흐름을 평소에 파악하고 있어 중요도 측면에서 다른 요인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4.2.2 중소기업 CEO의 상대적 중요도

본 연구에 응답한 중소기업 CEO의 설문지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위계층에서 상대적 중요도는 관리적 역량(0.34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역량(0.297), 기업가적 역량(0.232), 기술적 역량(0.122)의 순서로 나타나 대출담당자의 우선순위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위계층에서는 마케팅(0.153), 은행거래신뢰도(0.122), 자금조달(0.105) 등이 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윤리경영(0.103), 시장기회포착능력(0.092), 노사관리(0.091), 전략적 사고(0.079), 동업계 평판(0.072), 위기관리능력(0.061), 교육수준(0.052), 전문지식수준(0.045), 동업종 경력(0.025)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마케팅이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경쟁우위 달성에 중요한 핵심요소인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고[28-30], 사업성과 수익성을 위해 마케팅을 중심으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였고[16], CEO의 마케팅능력이 높을수록 기술혁신 전략을 통한 관계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하였고[31], 비즈니스모델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기술개발 실패그룹은 기술적 요인과 같은 핵심자원보다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한 연구결과와 같다[32].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의 품질수준이 높아도 매출중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수익창출을 할 수 없으므로 마케팅은 기업의 재무성과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은행거래신뢰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비재무모형에서 경영자경력, 경영형태와 함께 은행거래현황이 중요하다고 하였고[6], 은행거래에서 신뢰도를 잃으면 거래가 오래가지 못하여 기업은 은행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고[3]. 이는 중소기업이 대출금의 이자나 원금을 연체하게 되면 은행에서 바로 연락하여 상환을 독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CEO 입장에서 은행거래신뢰도가 낮을 경우에는 대출금의 만기연장이나 추가대출 등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 결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 CEO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가장 낮게 산출된 동업종 경력은 대출담당자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같다. 다음으로 낮게 산출된 전문지식수준은 기업가의 지식수준을 학력 요인에 포함한 선행연구에서 학력이 2차 텔파이 기법의 설문에서는 도출되었으나 3차 텔파이 기법에서 낮은 요인으로 도출되어 최종 확인된 10개 요인에 들지 못하여 기술기반 기업에서는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24]. 중소기업 CEO의 입장은 신용평가에서 경영자 역량 중 동업종 경력과 전문지식수준은 주기적인 신용평가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적고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다른 요인보다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4.2.3 대출담당자와 중소기업 CEO의 중요도 비교

신용평가에서 산출된 신용등급은 채권자인 은행에서는 대출금액 한도관리, 대출의사결정, 리스크관리, 대출자산 포트폴리오관리,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채무자인 기업에게 자금조달금액, 조달금리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신용평가에서 경영자 역량 등 비재무적 요인을 중시하면서도 평가방법이 은행마다 다르고 자주 변경되는 등 체계적인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동일한 기업도 신용등급이 은행마다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실무에서는 기업이 각각 다른 은행에서 동일한 신용등급을 받아도 은행마다 신용등급에 대한 적용기준이 달라 대출금액한도, 대출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신용평가는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주체와 목적에 따라 초점이 다르다고 하였다[5].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 등 채권자 집단, 기업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등 주주·투자자 집단,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집단으로 나눈다고 하였다. 채권자 집단은 대출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여 은행에서는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기업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주·투자자 집단은 기업의 성장성에 초

점을 두고 있으며, 경영자 집단은 비용 절감 및 수익성을 목적으로 생산관리, 판매관리, 자금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업상태와 영업성장, 자금조달과 사용 등에 초점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채권자 입장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대출담당자와 채무자 입장으로 신용평가를 받는 중소벤처기업 CEO 간에는 경영자 역량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출담당자의 우선순위로 나타난 윤리경영은 대출금 회수를 위한 안정성에 기업의 상환의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 중소벤처기업 CEO의 우선순위로 나타난 마케팅은 기업의 영업상태와 영업성장을 중요한 요인으로 본 것으로 사료된다. 중소벤처기업 CEO는 은행 등에서 경영자 역량 등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평가항목이나 가중치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아 신용등급의 산출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중소벤처기업 CEO가 신용평가에 대비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3 대출담당자의 직위 및 CEO의 벤처기업 인증 여부 차이에 따른 중요도

4.3.1 대출담당자의 직위 차이에 따른 중요도 비교

대출담당자의 직위에 따른 경영자 역량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Table 6과 같다. 상위계층에서 팀장은 사회적 역량(0.298), 기업가적 역량(0.261), 기술적 역량(0.223), 관리적 역량(0.218)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팀원은 사회적 역량(0.308), 기업가적 역량(0.270), 관리적 역량(0.218), 기술적 역량(0.204)의 순서로 나타났다. 팀장과 팀원에서 모두 사회적 역량이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은 다른 역량보다도 사회적 역량이 신용평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직위별 하위계층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보면 팀장에서는 동업계 평판, 전문지식수준, 전략적 사고, 윤리경영이 우선순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마케팅, 은행거래신뢰도, 시장기회포착능력, 교육수준으로 나

Table 5. Weights of Criteria by Bank Lending Staff

Criteria	Job Level			
	Team Leader		Team Member	
	Weight	Rank	Weight	Rank
Technical Competency	0.223	3	0.204	4
Entrepreneurial Competency	0.261	2	0.270	2
Managerial Competency	0.218	4	0.218	3
Social Competency	0.298	1	0.308	1

Table 6. Weights and Rankings based on Job Level of Bank Lending Staff

Sub-Criteria	Team Leader			Team Member		
	Weight	Adjusted Weight	Rank	Weight	Adjusted Weight	Rank
Career Experience	0.191	0.042	12	0.203	0.041	12
Level of Expertise	0.469	0.105	2	0.437	0.089	5
Level of Education	0.340	0.076	8	0.360	0.073	9
Crisis Management Ability	0.268	0.070	10	0.234	0.063	10
Ability to Capture Market Opportunities	0.339	0.088	7	0.389	0.105	2
Strategic Thinking	0.393	0.103	3	0.377	0.102	3
Financing	0.209	0.045	11	0.196	0.043	11
Marketing	0.440	0.096	5	0.424	0.092	4
Labor Management	0.351	0.076	8	0.380	0.083	6
Industry Reputation	0.354	0.106	1	0.258	0.080	7
Ethics Management	0.334	0.100	4	0.486	0.150	1
Bank Transaction Reliability	0.312	0.093	6	0.256	0.079	8

타났다. 팀원에서는 윤리경영, 시장기회포착능력, 전략적 사고, 마케팅이 우선순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문지식수준, 노사관리, 동업계 평판, 은행거래신뢰도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대출담당자의 직급별로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술력의 경우에는 팀장, 차장·과장, 대리·계장 직급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4].

대출담당자 직위에 따라 중요도가 다른 부분을 보면 팀장에서는 동업계 평판이 우선순위로 나타나 팀원보다 대출 경험이 많은 관리자로서 신용평가와 대출 의사결정을 할 때 동업계 평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전문지식수준은 중소기업 CEO와의 상담과정에서 기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된다. 팀원에서 윤리경영을 우선순위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평가자료의 신뢰성 문제와 부실화 가능성을 항상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고[33], 다음으로 나타난 시장기회포착능력은 대

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무한경쟁 시장에서 CEO 한 사람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어 시대와 시장의 요구에 맞게 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팀장에서 중요도가 높은 동업계 평판, 전문지식수준보다는 팀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윤리경영, 시장기회포착능력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볼 수 있다. 윤리경영을 외면하는 기업은 인터넷, SNS로 이와 같은 사실이 전파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사례가 많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시장기회포착능력이 없으면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팀장과 팀원의 중요도 차이가 동일한 기업의 신용평가에서 다른 신용등급으로 결정될 수 있어 평가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경영자역량에 대한 정교한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평가에서 경영자역량 요인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사,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할

Table 7. Weights of Criteria by CEO

Criteria	Venture Firms Certification			
	Venture Firms Certified		Venture Firms Uncertified	
	Weight	Rank	Weight	Rank
Technical Competency	0.104	4	0.135	4
Entrepreneurial Competency	0.252	3	0.218	3
Managerial Competency	0.301	2	0.380	1
Social Competency	0.343	1	0.267	2

Table 8. Weights and Rankings based on Venture Firms of CEO

Sub-Criteria	Venture Firms Certified			Venture Firms Uncertified		
	Weight	Adjusted Weight	Rank	Weight	Adjusted Weight	Rank
Career Experience	0.279	0.029	12	0.169	0.023	12
Level of Expertise	0.367	0.038	10	0.358	0.048	11
Level of Education	0.354	0.037	11	0.473	0.064	9
Crisis Management Ability	0.234	0.059	9	0.281	0.061	10
Ability to Capture Market Opportunities	0.455	0.115	3	0.360	0.078	6
Strategic Thinking	0.311	0.078	7	0.359	0.078	6
Financing	0.282	0.085	5	0.312	0.119	2
Marketing	0.445	0.134	2	0.436	0.166	1
Labor Management	0.273	0.082	6	0.252	0.096	4
Industry Reputation	0.193	0.066	8	0.276	0.074	8
Ethics Management	0.321	0.110	4	0.359	0.096	4
Bank Transaction Reliability	0.486	0.167	1	0.365	0.097	3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고, 경영자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대하려면 외부 정보와 타 기관의 신용평가자료 등의 경영자 역량 요인도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4.3.2 중소기업 CEO의 벤처기업 인증 여부 차이에 따른 중요도 비교

중소벤처기업 CEO의 설문조사에서 벤처기업 인증 여부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의 분석결과를 Table 7, Table 8과 같다. 벤처기업 인증기업은 상위계층에서 사회적 역량(0.343), 관리적 역량(0.301), 기업가적 역량(0.252), 기술적 역량(0.104)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났고, 벤처기업 미인증 기업에서는 관리적 역량(0.380), 사회적 역량(0.267), 기업가적 역량(0.218), 기술적 역량(0.135)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벤처기업 인증 여부 별 하위계층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벤처기업 인증기업은 은행거래신뢰도, 마케팅, 시장기회포착능력, 윤리경영이 우선순위 되었고, 다음으로 자금조달, 노사관리, 전략적 사고, 동업계 평판의 순서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미인증기업은 마케팅, 자금조달, 은행거래신뢰도, 노사관리가 우선순위 되었고, 다음으로는 윤리경영, 시장기회포착능력, 전략적 사고, 동업계 평판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업 인증기업이 벤처기업 미인증기업보다 대부분 업력이 길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이 가능하므로 은행거래신뢰도를 우선순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은행거래신뢰도는 기업의 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연체유무 등에 따라 추가 자금조달이 제한될 수 있고, 기업이 생존하는 동안 장단기계획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과 달리 은행거래신뢰도는 단기간만 상실되어도 기업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미인증기업은 대부분 업력이 짧고 제품판매가 중요하므로 사업성과 수익성에 직결되는 마케팅을 우선순위 한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인증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평판이 향상되어 시장에서 투자유치, 상장을 통한 공모 등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은행거래신뢰도를 중요하게 보았으며, 마케팅을 우선순위에 둔 벤처기업 미인증기업이 향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은행 등에서 벤처기업 인증기업처럼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우선순위에서 차

이가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기업의 신용평가는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로 자본조달시장에서 위험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며[34], 기업은 신용평가에서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금융회사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35, 36]. 신용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모형 및 방법론의 정보공시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37],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신용평가 전문가의 의사결정 능력이 신뢰할 만한 것이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는 검증된 바가 없으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비교하여도 우수한 예측성과를 있는지는 더욱 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였다[38]. 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출결정이나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와 소통하고 신용평가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신용평가에서 중요한 경영자 역량 요인을 델파이기법을 통하여 선정하고 계층분석모형으로 대출담당자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담당자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상위계층은 사회적 역량(0.303), 기업가적 역량(0.264), 관리적 역량(0.218), 기술적 역량(0.215)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위계층은 윤리경영(0.119), 전략적 사고(0.102), 전문지식수준(0.098)의 순으로 우선순위 되었다.

둘째, 중소기업 CEO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상위계층은 관리적 역량(0.349), 사회적 역량(0.297), 기업가적 역량(0.232), 기술적 역량(0.122)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위계층에서는 마케팅(0.153), 은행거래신뢰도(0.122), 자금조달(0.105)의 순으로 우선순위 되었다.

셋째, 대출담당자의 직위에 따른 경영자 역량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상위계층에서 팀장은 사회적 역량(0.298), 기업가적 역량(0.261), 기술적 역량(0.223), 관리적 역량(0.218)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팀원은 사회적 역량(0.308), 기업가적 역량(0.270), 관리적 역량(0.218), 기술적 역량(0.204)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출담당자의 직위

별 하위계층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보면 팀장에서는 동업계 평판, 전문지식수준, 전략적 사고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팀원에서는 윤리경영, 시장기회포착능력, 전략적 사고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넷째, 중소벤처기업 CEO의 벤처기업 인증 여부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는 상위계층에서 인증기업은 사회적 역량(0.343), 관리적 역량(0.301), 기업가적 역량(0.252), 기술적 역량(0.104)의 순서로 나타났고, 미인증기업은 관리적 역량(0.380), 사회적 역량(0.267), 기업가적 역량(0.218), 기술적 역량(0.135)의 순서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인증 여부별 하위계층 요인의 중요도는 인증기업에서는 은행거래신뢰도, 마케팅, 시장기회포착능력의 순으로 우선순위 되었고, 미인증기업에서는 마케팅, 자금조달, 은행거래신뢰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으로는 첫째, 선행연구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던 신용평가의 경영자 역량 요인을 델파이기법으로 12개 요인을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발한 연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신용평가를 하는 대출담당자와 신용평가를 받는 중소벤처기업 CEO를 구분하여 차이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다르다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은행과 신용평가회사 등에서 경영자 역량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을 연구한 것이다. 둘째, 중소벤처기업 CEO가 스스로 신용평가에 대비하도록 소통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을 공개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 점이다.

5.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경영자 역량 요인을 제외한 다른 비재무적인 요인과 재무적인 요인을 함께 연구하지 못하였다. 둘째, 은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영자 역량 요인과 기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영자 역량 요인을 각각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을 규모별 및 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평가에서 재무적 요인의 중요도와 경영자 역량 등 비재무적 요인의 중요도 비중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을 규모별 및 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전된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8).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Banks' Asset Managem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http://www.fss.or.kr>
- [2] Korea Enterprise Data. (2016). *KED Credit Rating Methodology*. <http://www.kedkorea.com>
- [3] Y. S. Kim, W. J. Yoo, C. G. Lee & D. M. Lee. (2012). A Study on Non-financial Factors for the Bankruptcy Prediction of Small & Mid-sized Venture Business through Cases. *Journal of the Korea management engineers society*, 17(1), 245-258.
- [4] W. J. Yoo & C. G. Lee. (2015). The Impact of Non-Financial Factors in SME and Venture Business Credit Evaluation.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8(12), 3191-3210. DOI :10.18032/kaaba.2015.28.12.3191
- [5] S. I. Kwon. (2015). *The Latest Corporate Credit Analysis(Eighth Edition)*, Seoul; Korea Finance Training Institute.
- [6] T. H. Hong & T. S. Shin. (2007). Developing Corporate Credit Rating Models Using Business Failure Probability Map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6(3), 1-20.
- [7] G. Lee & W. S. Choi. (2016). The Effect of Bank-Managers' Ability on Bank Performance. *korean management review*, 45(1), 213-240. DOI : 10.17287/kmr.2016.45.1.213
- [8] N. S. Kim. (2010). *A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Scheme of Credit Lending*. Seoul; Korea Consumer Agency
- [9]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8).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Personal Credit Rating System*. <http://www.fsc.go.kr>
- [10] P. G. Kim, S. W. Hwang & H. J. Lee. (2014). *Improvement of Credit Rating System*. Seoul;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11] Korea Investors Service. (2016). *Action II for transparency in credit rating*. <http://www.kisrating.com>
- [12] B. G. Park & S. G. Hwang. (2010). Pattern Analysis of Core Competency of CEO Using Fuzzy ID3.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20(2), 273-278.
- [13] C. B. Kim & S. H. Lee. (201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One-Person Company Entrepreneurs Capabilities on the Performance of Firm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0(8), 1387-1407. DOI : 10.18032/kaaba.2017.30.8.1387
- [14] H. C. Kim, A. R. Lim & K. P. Kim. (2015). The Effect

-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8(2), 27-58.
- [15] I. K. Lee & D. W. Yang. (2016).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CEO Technological Capability on Management Performance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technological capability in SM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167-182. DOI : 10.16972/apjbve.11.2.201604.167
- [16] C. S. Park & M. S. Kim. (2011). Credit Evaluation Model for Medical Venture Business B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6(2), 133-147. DOI : 10.16972/apjbve.6.2.201106.133
- [17] M. H. Morris, J. W. Webb, J. Fu & S. Singhal. (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DOI : 10.1111/jsbm.12023
- [18]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2014). *Criteria for evaluation of the president's public offering*. [http:// www.airport.kr](http://www.airport.kr)
- [19] H. H. Lee, B. Y. Hwang & C. H. Gong. (2017). A Study on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Initial Success of Start-U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1), 1-13. DOI : 10.16972/apjbve.12.1.201702.1
- [20] S. Y. Yun, S. S. Lim & Y. H. Cho. (2017). Study on Evaluation System and Practice Strategy of SME's CSR.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20(3), 131-158. DOI : 10.24991/kjhrd.2017.09.20.3.131
- [21] S. S. Lee. (2016). A comparison of weight on SWOT factors of hidden champ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163-174. DOI: 10.16972/apjbve.11.6.201612.163
- [22] S. I. Chae & D. M. Lee. (2014). A Study on Critical Factors for Outsourcing Partner Selection of Small & Medium Manufacturers using the AHP Analysis.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Review*, 11(4), 115-130. DOI :10.17092/jibr.2014.11.4.115
- [23] S. B. Lee. (2017). An Analysis on the Critical Startup Success Factors in Small-Sized Venture Busines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3), 53-63. DOI : 10.16972/apjbve.12.3.201706.53
- [24] Y. S. Yun & B. Y. Hwang. (2014).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ffecting on Angel Investors's Decision mak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3), 47-61. DOI : 10.16972/apjbve.9.3.201406.47
- [25] S. G. Shim. (2007). *What will corporate credit management do?*. Seoul: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26] M. G. Antonia, G. P. L. Domingo & V. A. Howard. (2011). An analysis of non-financial factors associated with financial distres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3(3), 59-186. DOI : 10.1080/08985620903233911
- [27] S. K. Choi, Y. Hwangbo & D. Y. Rhee. (2013). A Study on the Qualitative Evaluation Factors for Mobile Game Compan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3), 125-146. DOI : 10.16972/apjbve.8.3.201309.125
- [28] I. O. Jeon. (2017).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Corporate Performance: Focusing on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rketing Compet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3), 87-105.
- [29] S. M. Jang & K. I. Kim. (2018). The Effects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for ICT adoption on Globalization capabilities and business performance of SM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219-224. DOI : 10.22156/CS4SMB.2018.8.4.219
- [30] Y. B. Kim. (2017). A Study on the Strategy for Mainstream Market Entry of New Convergence Products - SMBs concerning.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2), 17-24. DOI : 10.22156/CS4SMB.2017.7.2.017
- [31] R. H. Yu, C. H. Yu & G. H. Kang. (2016).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Business Performance of B2B SME's. *Journal of East and Central Asian Studies*, 27(2), 55-71.
- [32] C. S. Lee, J. Y. Yoon & H. J. Ko. (2012). The Study on Relative Importance of R&D Business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6), 2551-2557.
- [33] J. H. Jeon. (2018).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Audit Size on Credit Rat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1-8. DOI : 10.15207/JKCS.2018.9.1.001
- [34] J. S. Lee & J. J. Kim. (2016). A Study on the Effective Combining Technology and Credit Appraisal Information in the Innovation Financing Marke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199-208. DOI : 10.14400/JDC.2017.15.1.199

- [35] K. H. Yoo & D. L. Kim. (2016). An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usefulness of Internal Control Information on Corporate Soundness Assess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163-175, DOI : 10.14400/JDC.2016.14.8.163
- [36] M. J. Lee & K. I. Khoe. (2015). Development Method of Digital Content Finance-Focused on by Technical Value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6), 111-117. DOI : 10.15207/JKCS.2015.6.6.111
- [37] S. K. Oh. (2011).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Korean Corporate Credit Rating Industry and Future Plans*. Seoul : Korea Institute of Finance
- [38] S. S. Bahn, K. M. Song & S. T. Kim. (2009). A Study on the Credit Rating as an Indicator of Venture Succ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2(1), 181-204.

이 천 희(Lee, Chun Hee) [정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신산업융합학과 박사과정
- 2012년 1월 ~ 현재 : 중소기업은행 지점장 근무
- 관심분야 : 벤처경영공학, 신용평가, 은행경영

· E-Mail : chunlee920@naver.com

이 동 명(Lee, Dong Myung) [정회원]



- 2012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전략경영, 공급사슬관리, e-비즈니스, 리더십, CSR
- E-Mail : dmlee@konkuk.ac.kr

진 로(Chen Lu) [정회원]



- 2018년 8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박사
- 관심분야 : 핀테크 서비스, e-비즈니스
- E-Mail : chenlu8807@hotmail.com